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116호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강병이와 발벼에 대한 원종생산체계, 재종체계, 종자공급체계 등을 철저히 세우는데 대한 문제, 농장을 첨단농업과 학연구중심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자, 연구시대별을 더욱 끈끈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눈썹이 아

독하게 펼쳐진 풍요한 농장방을 바라보시며 최근년간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에서 당의 명도민에 종자 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특히 농업 전선에서 용장훈을 부풀수 있는 강병이, 발벼종자들을 육종해낸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병이 이름을 몸소 <평양9>호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서 농장에서 담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여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냄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당에서 정한 일과생산 고지를 절정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거듭거늘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려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으로 규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한 해결하자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자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품종, 가을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병해와 고온피해, 병충해에 견딜성이 강한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기술, 선봉대로

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1116호농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가길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계적수준의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여 사회주의협동법다에 황금이삭이 설레이게 하고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마뚝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 51돌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따뜻한 축전을 대단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에 대한 당신의 진실한 감정과 우리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에 시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데로와 그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시고 우리 나라가 시련을 이겨내며 안전과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는 당신의 변함없는 입장을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6년 9월 11일
다마스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강고기가공공장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명도 김정은동지의 지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을 평강고기가공공장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주체조선의 창당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지애로운 영상이 중첩하게 형상되어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명도마라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평강군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922건설돌격대원들의 혁명열의를 신념과 결사의 의지의 함현으로 된다.

조선식이 12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평강군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평강고기가공공장 종업원들, 922건설돌격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세 조국건설의 그 비쁘신 속에서 주체 37(1948)년 8월 본계연선지대의

경강방을 몸소 찾으시고 압록강을 높이 이끄는것과 함께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뭄지갈한 전하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매일을 내다보시고 세로풍판을 개간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드르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에 집집을 많이 기르는데를 비롯하여 군이 나아가길 앞길을 활기 있게 해주셨다고 그는 말씀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이수령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세로풍판을 개간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방향과 방향을 밝혀주시고 은정어린 조치들도 거듭 위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넘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로풍판을 길지의 대우 모옥산까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날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세로풍판이 사회주의대추산까지로 나아가 훌륭하게 변모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이인 위원을 파우명으로 삼으시고 세로풍판의 축산업발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백두산 청년강국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자나깨나 항상 뵈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력사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싶이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백두산청년강국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지향된 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원수님의 명도마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파시던 영광의 대회, 총정의 대회였습니다.

우리들은 대회장에서 청년운동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의 사랑과 의지로 숨쉬며 원수님의 두리에 생명을 이루고 원수님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무너진것이 없고 꽃피는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요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습니.

우리들은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주시고 뜨겁게 사랑해주시는가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우리 재중조선청년들을 불러주시었다는 품만 같은 소식에 걸한 그 순간부터 대회장 면에서부터 끝까지도 그대 원수님을 뵈옵수 있음은 하는 간절한 희망을 심장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달려온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속을 헤아리시어 우리 대표단 단장을 영평의 대회주석단에 세우주시고 축하연설도 하도록 베풀어주시었다는 눈부신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회장에서 거듭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었다는뿐아니라 저희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대회환영을 해주어주시었습니다.

이제 그대였습니다.

우리들이 삼가 올리는 축기도 몸소 받아주시어 귀중한 말씀도 주시고 자신의 바로 열자리에 우리들을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촬영도 해주시는 최상대대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속으로 안겨주시었습니다.

솔직히 백두산청년동맹의 상조자들과 인공위성과 수조탄을 만들어 내고 전파방송을 단도단수중시합발사공에 기여한 청년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시고 축하해주고싶으신 청년대표들이 얼마나 많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국앞에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저희들을 태양의 품에 안아 온 나라 청년들과 세상사람들앞에 크게 내세워주시었으니 세상에 사람이 어디보다 큰 사랑, 영광이 어디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 재중조선청년련합회뿐만이 아닌 전체 재중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알아안는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영평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 같은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은 전체 해외동포들, 아니 온 민족이 안겨살 위대한 어버이의 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총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오른 대회기간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청년운동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삶과 투쟁의 유일한 라선관으로 삼고 전진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심장속에 오직 당의 붉은 피만이 흐르고 백두의 현명정신, 백두의 김바람정신을 뼈에 새긴 청년강국의 주인품들을 보았습니다.

백두 부처지고 몸이 쪼개져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헌신합의 성세, 방목에 굳게 붙어 정충도 생멸도 서슴없이 비쳐 싸

우는 백룡반보다 더 위대한 조국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았습니다.

력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받들어 평온의 열정 끓어넘치는 경진장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매워버리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만리마사대 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심장에 새겨안았습니다.

수령제사용위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단장약되고 우리 당이 정해준 정로마라 언제나 끝까지 목숨까지 걸고가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에서 온 세상이 부러움에 겨워 숨쉬는 사회주의강국을 보았고 험된 망상에 오 뉴월의 개굴만 꾸민 적대세력들의 가련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마라주체혁명위업의 방장대로 위용면치는 조국청년들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청춘을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룡반에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감격의 눈물만을 흘리며 우리들이 아니라 후손들이 보답의 한길만을 걸어 나가는 원수님의 해외지사, 민족의 아들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3대강국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후손에게 김일성공훈훈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풍상을 더욱 정중히 모시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항일혁명전적지와 시적물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영히 빛내여나가는 사명을 앞장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청년들을 제1호 애고 사랑하시며 청년들을 믿으시고 내 조국의 창당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동포청년들속에 널리 전진하여 원수님 숭배열기를 고시시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불도 없는 백두산청년강국의 해외조선청년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사람의 공민청년이라도 더 찾아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붙어세우며 재중조선청년련합회를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오직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김정은해외청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갔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정의 기치높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가 되며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명령을 위한 애국위업에 실천으로 목숨있게 이바지해나갔습니다.

만약 미래가 어머니조국땅에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1950년대의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처럼 헌신합의 열매나 조국의 500만 청년들과 함께 혁명대가 되어 우리 운명의 태양을 전사용위하며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조국을 떠나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가슴속에 사무쳐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멀리 이역명에서 조국을 그리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성원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총정의 참마음을 담아 백두산청년강국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지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제105(2016)년 9월 6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재중조선인 청년련합회대표단일동 올립니다.

[조선중앙통신]